

#30. 글로벌 K-뷰티: 뷰티테크 특허 선점 및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최근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AI 와 디바이스가 결합된 ‘뷰티테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홈 케어 기기의 보급과 AI 피부 진단을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가 글로벌 표준으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성분이나 상표 중심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IP) 전략만으로는 모방 제품과 기술 추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구조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뷰티 디바이스 IP 와 맞춤형 화장품 기술보호의 쟁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IP: 단순 기구적 구조를 넘어선 능동적 제어 및 구동 방법의 권리화

뷰티 디바이스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제품을 분해하여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매우 취약합니다.

- 다차원적 청구항 설계: 예를 들어 특정 파장의 광이나 전류를 피부에 전달하는 기술이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의 피부 상태나 압력에 따라 에너지 출력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과 시스템, 나아가 디바이스까지 각각 청구항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A 사 사례: 국내 선도 뷰티 디바이스 기업 A 사는 단순히 LED 마스크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피부 접촉 여부 및 면적에 따라 광원의 조사 패턴과 출력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제어 방법’을 특허화하여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기술보호: AI 진단과 데이터 흐름의 권리화

맞춤형 화장품의 핵심 경쟁력은 사용자의 피부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집, 분석하여 최적의 제형을 매칭하는가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인공지능(AI) 모델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개입됩니다.

이전 연구자료에서 강조했듯, AI 모델의 기초적인 알고리즘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맞춤형 화장품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자사 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결과물로 이어지는지, 흐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데이터 전처리와 UI/UX 의 결합: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용자의 피부 이미지를 획득할 때, 조명이나 각도의 오차를 보정하는 이미지 전처리 방법이나, 진단 결과를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UI/UX 기술은 훌륭한 특허 포인트가 됩니다.
- B 사 사례: 맞춤형 화장품 스타트업 B 사는 성분 배합 비율을 결정하는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고객의 문진 데이터와 계절적/환경적 변수(온습도, 미세먼지 지수 등)를 연동하여 '실시간 추천 솔루션'을 도출하는 컴퓨팅 프로세스 전반을 특허로 등록받아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확장을 위한 K-뷰티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K-뷰티 기업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의 권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핵심 타겟 국가의 특허 실무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조기 출원과 우선권 주장의 활용: 디바이스의 시제품이 나오거나 맞춤형 진단 서비스의 핵심 기획이 완료된 시점에 국내 특허를 빠르게 출원(또는 가출원)하여 출원일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후 1 년 이내에 PCT 국제출원이나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해외 출원을 진행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K-뷰티 특허 보호망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YNP 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6 YNP IP

길세영 변리사

Patent Attorney / Partner

sygil@ynpip.com